

## 玄谷 五臟 瀉方の 조성 약물과 그 氣味配伍 분석

申舜植\*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Hyeongok's Formulas for Purging Five Viscera and their Ingredients Compatibility of the Properties and Tastes in Herbal Medicines

Soon Shik Shin

Department of Formula Scienc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614-052, South Korea

#### 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lie in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formulas for purging five viscera for curing the sthenic syndrome of five viscera through analyzing the component medicines and combination principles of Hyeongok's formulas for purging five viscera, and furthermore, maximizing the clinical use of them.

**Methods :**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nent medicines and combination principles of Hyeongok's formulas for purging five viscera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from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the theory for principal herbal medicine, assistant herbal medicine, adjuvant herbal medicine, dispatcher herbal medicine, and the five elements doctrine. Hyeongok 's formulas for purging five viscera are *Sagantang*, *Saseemtang*, *Sabeetang*, *Sapyeotang*, and *Pyeongshintang*.

**Results :** There are three methods for curing the sthenic syndrome of five viscera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doctrine : in case of *Sagantang* purging the liver, purging the heart and invigorating the lung ; *Saseemtang*, purging the heart, purging the spleen and invigorating the kidney ; *Sabeetang*, purging the spleen, purging the lung and invigorating the liver ; *Sapyeotang*, purging the lung, purging the kidney and invigorating the heart ; *Pyeongshintang*, purging the kidney, purging the spleen and invigorating the spleen.

**Conclusions :** First, to cure the sthenic syndrome of five viscera, the methods of purging five viscera, and invigorating five viscera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doctrine. Secondly, herbal medicines appropriate for those treatment methods should be chosen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 and thirdly, the combination of those herbal medicines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incipal herbal medicine, assistant herbal medicine, adjuvant herbal medicine, dispatcher herbal medicine. As a good example, Hyeongok's formulas for purging five viscera are combined according to the above theories.

In conclusion, this formula was created by apply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Key Words :** *Sagantang*, *Saseemtang*, *Sabeetang*, *Sapyeotang*, *Pyeongshintang*,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 서론

韓藥은 氣味論에 근거하여 그 효능을 예측한다. 한약물 상호

간의 길항작용·相乘작용·變性작용을 나타내는 藥性の 七情說과 方劑의 배합이론인 君臣佐使說도 氣味論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약학과 방제학은 기미론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교신저자 : 申舜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51-850-7414, · E-mail : ssshin@deu.ac.kr,  
· 접수 : 2011년 11월 19일 · 수정 : 2012년 1월 3일 · 채택 : 2012년 1월 13일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方劑를 분석하여 이해하는데 기미론으로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수단은 鍼灸와 약물 특히 方劑이다. 鍼灸療法 특히 舍巖鍼法은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오행론을 기반으로 체계화하여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는데 반하여<sup>1-3)</sup>, 방제는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정립은 물론이고 임상 활용도도 부족한 실정이다.

玄谷(尹吉榮, 생몰년 1911-1987, 號 玄谷) 선생의 五臟瀉方은 瀉肝湯瀉心湯瀉脾湯瀉肺湯과 平腎湯을 지칭하는 것으로 『東醫臨床方劑學』의 『醫案要訣』<sup>4)</sup>에 나온다. 현곡 선생의 오장 사방은 氣味配伍와 오행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되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瀉肝湯<sup>5)</sup>, 瀉心湯<sup>6)</sup>, 瀉脾湯<sup>7)</sup>, 瀉肺湯<sup>8)</sup>과 平腎湯<sup>9)</sup>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조성약물과 氣味配伍를 분석하여 왔고, 이들 연구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五行論氣味藥性論과 君臣佐使論이 五臟瀉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현곡의 五臟瀉方

현곡선생의 瀉肝湯은 芍藥 2돈 木瓜 生地黃 竹葉 柴胡 黃芩 甘草 각1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물수가 7종으로 奇方이며, 肝實을 치료하는 通治方이고, 瀉心湯은 生地黃 2돈 竹葉 黃連 梔子 燈心 車前子 甘草 각1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물수가 7종으로 奇方이며, 心實을 치료하는 通治方이고, 瀉脾湯은 黃連 2돈 梔子 桂枝 石膏 枳實 厚朴 大黃 각 1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물수가 7종으로 奇方이며, 脾實을 치료하는 通治方이고, 瀉肺湯은 石膏 3돈 桂枝 澤瀉 茯苓 麻黃 杏仁 甘草 각1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물수가 7종으로 奇方이며, 肺實을 치료하는 通治方이고, 平腎湯은 澤瀉 2돈 茯苓 芍藥 木瓜 豬苓 肉桂 甘草 각1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물수가 6종으로 偶方이며, 腎實을 치료하는 通治方이다 (표1).<sup>4)</sup>

표1. 현곡 오장 사방의 조성약물, 氣味와 용량

方名	약물	芍藥	木瓜	生地黃	竹葉	柴胡	黃芩	甘草
瀉肝湯	氣味	苦酸甘微寒	酸溫	甘苦寒	甘辛淡寒	苦微寒	苦寒	甘平
	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瀉心湯	약물	生地黃	竹葉	黃連	梔子	燈心	車前子	甘草
	氣味	甘苦寒	甘辛淡寒	苦寒	苦寒	甘淡微寒	甘微寒	甘平
	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瀉脾湯	약물	黃連	梔子	桂枝	石膏	枳實	厚朴	大黃
	氣味	苦寒	苦寒	辛甘溫	辛甘大寒	苦辛微寒	苦辛溫	苦寒
	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瀉肺湯	약물	石膏	桂枝	澤瀉	茯苓	麻黃	杏仁	甘草
	氣味	辛甘大寒	辛甘溫	甘淡寒	甘淡平	辛微苦溫	苦微溫	甘平
	용량	3돈 (11.2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平腎湯	약물	澤瀉	茯苓	芍藥	木瓜	豬苓	肉桂	甘草
	氣味	甘淡寒	甘淡平	苦酸甘微寒	酸溫	甘淡平	辛甘熱	甘平
	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5푼 (1.875g)

## 연구방법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sup>10)</sup> 방제학의 君臣佐使論,<sup>11)</sup> 한의학 기초이론인 五行論<sup>12)</sup>을 바탕으로 한 五行相生·五行相剋·五行相乘·五行相侮, 『難經』의 補母瀉子法,<sup>13)</sup> 『舍巖道人鍼灸要訣』의 抑官補法<sup>1)</sup>을 이용하여 현곡선생의 五臟補方을 분석하였다.

○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sup>10)</sup>: 酸味の 약리적 작용은 弛緩한 것을 收斂하고 肺를 補하고 肝을 瀉하며 肝과 筋에 親和性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筋病과 脾病에는 不利하며 肝病에는 利로우며 過食에서 오는 부작용은 肌肉이 臃腫하고 脣揚하며 小便이 癃閉하는 症이 있고 筋을 傷하며 甘味에는 優勢하나 辛味에는 劣勢하다.

苦味の 약리적 작용은 脆爽한 것을 堅固히 하고 發하고 泄하고 淸하며 腎을 補하고 脾를 瀉하며 心과 骨(骨이 血로 된 곳도 있다)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肺病과 骨病(骨病이 血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고 心病에는 利로

우며 氣의 溫과 습하면 燥를 제거하고 熱과 습하면 濕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脾氣가 濡하지 못하여 胃氣가 厚해지고(胃에 留하는 것을 말함) 皮膚가 枯燥하고 毛拔하며 嘔症이 있고 氣를 傷하며 辛味에는 優勢하나 鹹味에는 劣勢하다.

甘味の 약리적 작용은 急迫症狀을 緩和하고 脾를 補하며 心을 瀉하고 脾와 肉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肉病과 腎病에는 不利하며 脾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습하면 內生의 寒을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喘滿色黑·惋心·骨痛髮落의 症이 있으며 肉을 傷하며 鹹味에는 優勢하나 酸味에는 劣勢하다.

辛味の 약리적 작용은 興奮發散하고 燥한 것을 潤하며 肝을 補하고 肺를 瀉하며 肺와 氣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氣病과 肝病에는 不利하며 肺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습하면 外入의 寒을 제거하고 凉과 습하면 風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筋脈이 沮弛하여 精神에 害가 되며 筋急하고 爪枯하며 洞心하고 皮毛를 傷하며 酸味에는 優勢하나 苦味에는 劣勢하다.

鹹味の 약리적 작용은 堅한 것을 熨하고 心을 補하고 腎을 瀉하며 腎과 血(血이 骨로 된 곳도 있다)에 沁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心病과 血病(血病이 骨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고 腎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寒과 습하면 熱과 火를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大骨(腰高骨)의 氣를 傷하며 脈이 凝泣하여 色이 變하고 渴症이 있고 血을 傷하며 苦味에는 優勢하나 甘味에는 劣勢하다. 氣의 작용을 말하면 氣에는 和氣溫氣·涼氣熱氣寒氣의 五氣가 있는데 味로써 補肝補肺補脾補腎瀉心하는 데는 和와 並用하고, 補心瀉肺瀉腎에는 溫과 병용하며, 瀉肝에는 涼과 병용하고, 瀉脾에는 或溫或涼或熱과 병용한다. 味로써 六氣를 治할 때, 治熱에는 寒과 병용하고, 治濕治寒에

는 熱과 병용하며, 治燥에는 溫과 병용하고, 治風에는 涼과 병용한다. 또, 甘은 緩하고, 辛은 散하고 潤하며, 酸은 收하고, 苦는 泄하고 燥하고 堅하며, 鹹은 軟하니 그 특성을 이용하여 苦急하면 甘으로 緩하고, 苦緩하면 酸으로 收하고, 苦濕하면 苦로 燥하고, 苦氣逆하면 苦로 泄하고, 苦燥하면 辛으로 潤하며 散하려면 辛으로 散하고 軟하려면 鹹으로 軟하고 緩하려면 甘으로 緩하고 收하려면 酸으로 收하고 堅하려면 苦로 堅한다. 또, 風은 辛으로 調上하고 寒은 溫하고 熱은 鹹으로 清하여 그 上을 調하고 苦로 發하고 酸으로 收하며 濕은 苦로 燥하고 甚하면 發하고 泄하며 火는 마땅히 鹹과 酸으로 滲하고 泄한다(瀉는 瀉水로 氣味와 관계가 없어 漚다) (표2).<sup>10)</sup>

표2.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sup>10)</sup>

味	작용	선택작용	補	瀉	부작용	不利 (五行相剋)	有利 (本臟味)	病苦	所欲	味優劣 (五行相剋)	六氣 치료
酸味	收斂 (澀味同)	肝筋	肺	肝	胝膈腎揭小便痿傷筋	脾病筋病 (筋筋縮傷筋)	肝病	心苦緩酸收	欲收酸收	勝甘敗辛	
苦味	堅稟·發清泄·治燥·治濕	心骨 (血)	腎	脾	胃氣厚(留物)·皮膚枯燥·拔毛傷氣	肺病·骨病 (骨寒傷骨)	心病	肺苦氣逆苦泄 脾苦濕苦燥	欲堅苦堅	勝辛敗鹹	濕苦 燥苦
甘味	緩和·治內寒·滲泄 (淡滲泄)	脾肉	脾	心	喘滿·色黑·怵心·骨痛·髮落·傷肉	腎病肉病 (助濕傷肉)	脾病	肝苦急甘緩	欲緩甘緩	勝鹹敗酸	內寒甘
辛味	發散·潤燥·治風·治外寒	肺氣	肝	肺	吉精神·筋急·爪枯·洞心·傷皮毛	肝病氣病 (筋脈阻馳傷氣)	肺病	腎苦燥辛潤	欲散辛散	勝酸敗苦	外寒辛 風辛
鹹味	稟堅·下泄·火·治熱·火	腎血 (骨)	心	腎	大骨氣傷·脈凝泣·色變·渴症·傷血	心病血病 (凝泣傷血)	腎病	脾苦厚鹹泄	欲稟鹹稟	勝苦敗甘	熱火鹹

氣 治熱에 并寒하고 治濕에 并熱하고 治燥에 并溫하고 治寒에 并熱하고 治風에 并涼하고; 補肝에 并和하고 瀉肝에 并涼하고; 補心에 并溫하고 瀉心에 并和하고; 補脾에 并和하고 瀉脾에 并或溫或熱或涼하고; 補肺에 并和하고 瀉肺에 并溫하고; 補腎에 并和하고 瀉腎에 并溫한다.

비고 『難經』에 五行相生相剋을 이용하여 實하면 瀉子하고 虛하면 補母한다고 하였다. 溫熱은 發熱하니 甘辛과 같은 작용을 하고, 寒涼은 發泄하니 苦鹹과 같은 작용을 하나 軟堅하는 작용이 없다.

- 君臣佐使論 : 방제를 조성하는 약물들을 君藥臣藥佐藥使藥으로 배치하고, 목표 병증의 치료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약물들을 합리적으로 配伍하는 원리와 원칙을 말한다.<sup>11)</sup>
- 五行論 : 본래 오행론은 木火土金水라는 五行의 내합·특성·상생·상극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주 만물의 운동 변화와 그 상호연계를 밝히는 고대 동양철학이론이다. 이 이론이 고대 동양철학의 우주관과 방법론이 되면서 한의학에 도입되어 인체의 臟腑의 생리·병리 관계 및 이들과 외부환경의 관계를 밝히며 질병의 진단·예방과 치료의 기초이론이 되었다. 여기에는 五行相生·五行相剋·五行相乘·五行相侮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림1-6).<sup>12)</sup>
- 補母瀉子法 : 『難經』의 「六十九難」에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sup>13)</sup>라하여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虛하면 자신을 생하는 母를 補하고, 實하면 자신이 생하는 子를 瀉하는 치료원칙이다 (그림1-2).

- 抑官補臟法 : 『舍岩道人鍼灸要訣』에 “虛則抑其官, 實則補其臟.”<sup>1)</sup>라하여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虛하면 자신을 剋하는 所勝를 瀉하고, 實하면 자신이 剋하는 所不勝을 補하는 치료원칙이다 (그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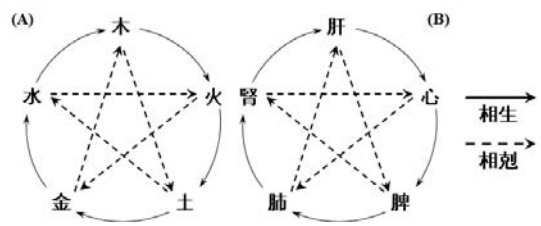


그림1. 五行 및 五臟의 相生相剋 원리. 五行은 木火土金水를 말한다. 相生은 相互資生·助長·促進의 뜻이 있어 五行相生은 木火土金水의 오행 사이에 資生·助長·促進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순서는 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이다. 相剋은 억제·제약의 뜻이 있어 五行相剋은 木火土金水의 오행 사이에 억제·제약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순서는 木剋土·土剋水·水剋火·火剋金·金剋木이다. 五行의 木火土金水는 五臟의 肝心脾肺腎에 배속된다. (A) : 五行의 相生相剋; (B) : 五臟의 相生相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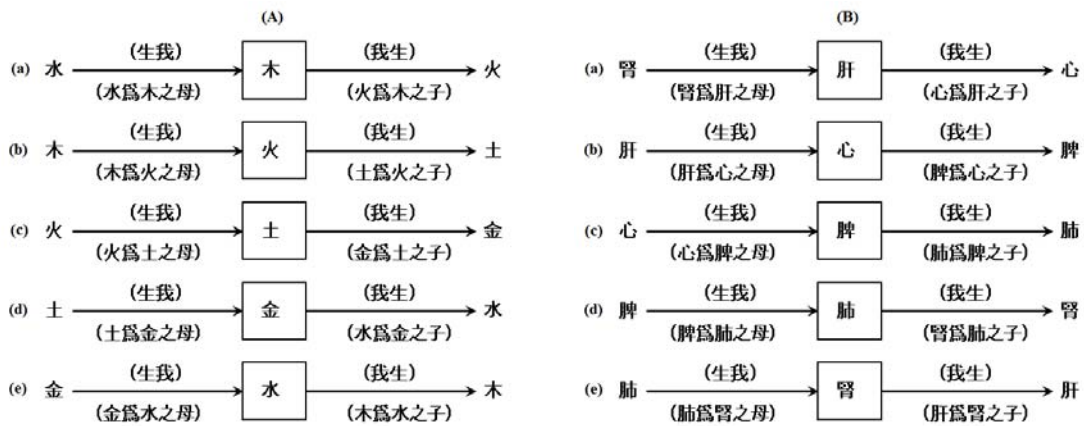


그림2. 五行 및 五臟의 母子관계. (A) 五行의 母子관계 : 오행의 상생원리에 따라 水生木하므로 水는 木의 母가 되고, 木生火하므로 火는 木의 子가 되고 (a); 木生火하므로 木은 火의 母가 되고, 火生土하므로 土는 火의 子가 되고 (b); 火生土하므로 火는 土의 母가 되고, 土生金하므로 金은 土의 子가 되고 (c); 土生金하므로 土는 金의 母가 되고, 金生水하므로 水는 金의 子가 되며 (d); 金生水하므로 金은 水의 母가 되고, 水生木하므로 水는 木의 子가 된다 (e). (B) 五臟의 母子관계 : 오행의 오장 배속과 상생원리에 따라 腎生肝하므로 腎은 肝의 母가 되고, 肝生心하므로 心은 肝의 子가 되고 (a); 肝生心하므로 肝은 心의 母가 되고, 心生脾하므로 脾는 心의 子가 되고 (b); 心生脾하므로 心은 脾의 母가 되고, 脾生肺하므로 肺는 脾의 子가 되고 (c); 脾生肺하므로 脾는 肺의 母가 되고, 肺生腎하므로 腎은 肺의 子가 되며 (d); 肺生腎하므로 肺는 腎의 母가 되고, 腎生肝하므로 腎은 肝의 子가 된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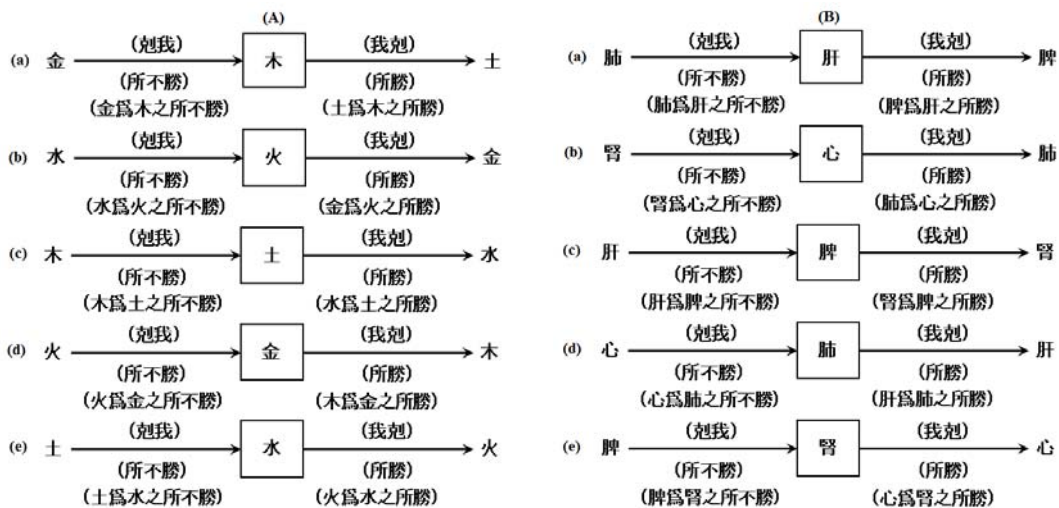


그림3. 五行 및 五臟의 所勝所不勝 관계. (A) 오행의 所勝所不勝 관계 : 오행의 상극원리에 따라 金剋木하므로 金은 木의 所不勝이 되고, 木剋土하므로 土는 木의 所勝이 되고 (a); 水剋火하므로 水는 火의 所不勝이 되고, 火剋金하므로 金은 火의 所勝이 되고 (b); 木剋土하므로 木은 土의 所不勝이 되고, 土剋水하므로 水는 土의 所勝이 되고 (c); 火剋金하므로 火는 金의 所不勝이 되고, 金剋木하므로 木은 金의 所勝이 되며 (d); 土剋水하므로 土는 水의 所不勝이 되고, 水剋火하므로 火는 水의 所勝이 된다 (e). (B) 오장의 所勝所不勝 관계 : 오행의 오장 배속과 상극원리에 따라 肺剋肝하므로 肺는 肝의 所不勝이 되고, 肝剋脾하므로 脾는 肝의 所勝이 되고 (a); 腎剋心하므로 腎은 心의 所不勝이 되고, 心剋肺하므로 肺는 心의 所勝이 되고 (b); 肝剋脾하므로 肝은 脾의 所不勝이 되고, 脾剋腎하므로 腎은 脾의 所勝이 되고 (c); 心剋肺하므로 心은 肺의 所不勝이 되고, 肺剋肝하므로 肺는 肝의 所勝이 되며 (d); 脾剋腎하므로 脾는 腎의 所不勝이 되고, 腎剋心하므로 心은 腎의 所勝이 된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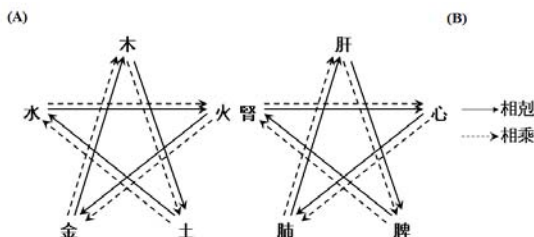


그림4. 五行 및 五臟의 相乘原理와 相剋관계. 五行은 木·火·土·金·水를 말한다. 相乘은 서로 알보는 것으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알본다는 뜻이 있어 五行相乘은 정상적인 五行相剋의 異常을 말하고, 오행 중 한 행이 所勝하는 行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운행의 순서는 木乘土·土乘水·水乘火·火乘金·金乘木이다. (A) : 五行의 相剋相乘; (B) : 五臟의 相剋相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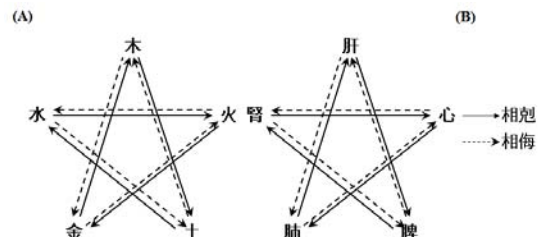


그림5. 五行 및 五臟의 相侮原理와 相剋관계. 五行은 木·火·土·金·水를 말한다. 相侮는 서로 업신여기다·모욕하다는 뜻이 있어 五行相侮는 정상적인 五行相剋의 異常을 말하고, 오행 중 한 행이 所不勝하는 行을 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운행의 순서는 木侮金·金侮火·火侮水·水侮土·土侮木이다. (A) : 五行의 相剋相侮; (B) : 五臟의 相剋相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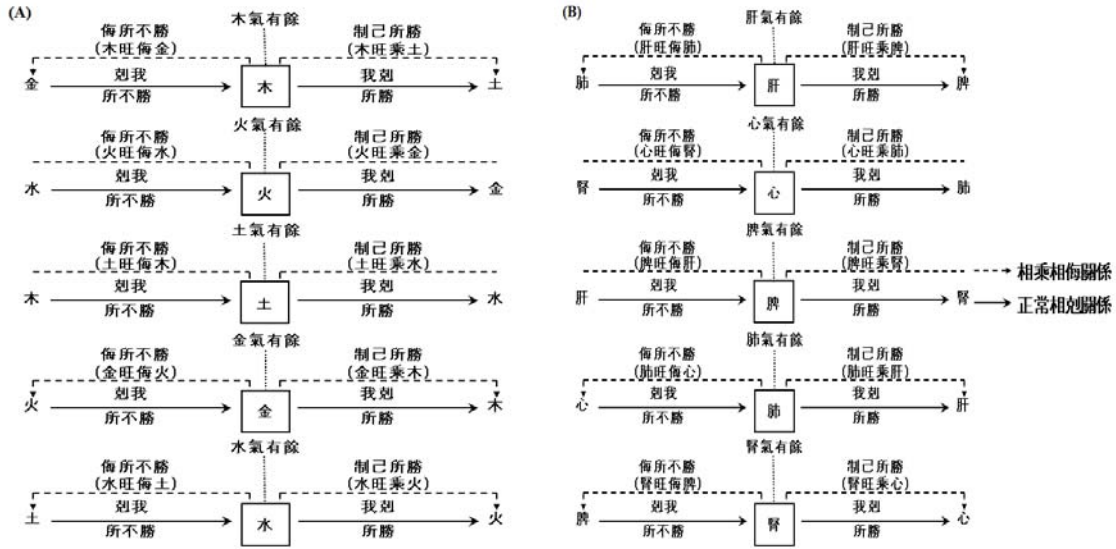


그림6. 五行 및 五臟의 相乘-相侮의 발생과 원리. (A) 오행의 相乘-相侮의 발생과 원리: 木氣有餘하면 木의 所不勝하는 金을 相侮하므로 木旺侮金이 되고, 木의 所勝하는 土를 相乘하므로 木旺乘土가 되며 (a); 火氣有餘하면 火의 所不勝하는 水를 相侮하므로 火旺侮水가 되고, 火의 所勝하는 金을 相乘하므로 火旺乘金이 되며 (b); 土氣有餘하면 土의 所不勝하는 木을 相侮하므로 土旺侮木이 되고, 土의 所勝하는 水를 相乘하므로 土旺乘水가 되며 (c); 金氣有餘하면 金의 所不勝하는 火를 相侮하므로 金旺侮火하고, 金의 所勝하는 木을 相乘하므로 金旺乘木이 되며 (d); 水氣有餘하면 水의 所不勝하는 土를 相侮하므로 水旺侮土가 되고, 水의 所勝하는 火를 相乘하므로 水旺乘火가 된다 (e). (B) 오장의 相乘-相侮의 발생과 원리: 오행의 五臟 배속 및 相乘-相侮의 발생과 원리에 따라 肝氣有餘하면 肝의 所不勝하는 肺를 相侮하므로 肝旺侮肺가 되고, 肝의 所勝하는 脾를 相乘하므로 肝旺乘脾가 되며 (a); 心氣有餘하면 心의 所不勝하는 腎을 相侮하므로 心旺侮腎이 되고, 心의 所勝하는 肺를 相乘하므로 心旺乘肺가 되며 (b); 脾氣有餘하면 脾의 所不勝하는 肝을 相侮하므로 脾旺侮肝이 되고, 脾의 所勝하는 腎을 相乘하므로 脾旺乘腎이 되며 (c); 肺氣有餘하면 肺의 所不勝하는 心을 相侮하므로 肺旺侮心하고, 肺의 所勝하는 肝을 相乘하므로 肺旺乘肝이 되며 (d); 腎氣有餘하면 腎의 所不勝하는 脾를 相侮하므로 腎旺侮脾가 되고, 腎의 所勝하는 心을 相乘하므로 腎旺乘心이 된다 (e).

## 고찰

肝實하면 肝 자체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肝의 子가 되는 心을 瀉하는 방법,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肝의 所勝이 되는 肺를 補하는 방법이 있다.

肝 자체를 瀉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한다 (표2).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肝病者, …… 用辛補之, 酸瀉之.」<sup>14)</sup>에 의하면 肝의 味瀉는 酸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酸瀉肝).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肝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한다. 간은 봄에 해당되고 봄의 氣는 溫하므로 간은 溫氣에 反하는 涼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涼瀉肝). 따라서 肝의 味瀉는 酸味를 갖고 있는 芍藥木瓜를 배합하여 酸味藥으로 목과는 臣藥으로 하였으며, 간의 氣는 溫으로 그 性에 反하는 氣가 涼한 柴胡黃芩을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肝實하면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肝의 子가 되는 心을 瀉해야 한다 (그림1-2). 瀉心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心病者, …… 用鹹補之, 甘瀉之.」<sup>14)</sup>에 의하면 心의 味瀉는 甘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甘瀉心).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心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한다. 心은 여름에 해당되고 여름의 氣는 熱하므로 心은 熱氣에 反하는 寒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寒瀉心). 따라서 心의 味瀉의 경우 甘瀉心하므로 甘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心의 氣瀉의 경우 寒瀉心하므로 寒藥을 사용해야한다. 甘味이면서 寒氣를 갖고 있는 生地黃竹葉을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肝實하면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肝의 所勝이 되는 肺를 補해야한다 (그림3-6). 補肺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補와 氣補를 해야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肺病者, …… 用酸補之, 辛瀉之.」<sup>14)</sup>에 의하면 肺의 味補는 酸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酸補肺).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肺의 氣補는 “順其性”을 해야한다. 肺는 가을에 해당되고 가을의 氣는 涼하므로 肺는 涼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補가 된다 (涼補肺). 따라서 味補의 경우 酸補肺하므로 酸味藥을 사용해야하며, 氣補의 경우 涼補肺하므로 涼藥을 사용해야 한다. 酸味인 芍藥과 목과는 肝을 瀉하는 이외에도 肺를 補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고, 涼氣를 갖고 있는 柴胡黃芩을 배합하여 肝을 瀉하는 이외에도 肺를 補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肝苦急, 急食甘以緩之.」<sup>14)</sup>에 따라 甘초를 使藥으로 배합하여 방제를 구성하는 모든 약물들을 조화시키고 있다.

心實하면 心 자체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心의 子가 되는 脾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心의 所勝이 되는 腎을 補하는 방법이 있다.

心 자체를 瀉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한다 (표2).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心病者, …… 用鹹補之, 甘瀉之.」<sup>14)</sup>에 의하면 心의 味瀉는 甘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甘瀉心).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心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한다. 心은 여름에 해당되고 여름의 氣는 熱하므로 心은 熱氣에 反하는 寒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寒瀉心). 따라서 心의 味瀉는 甘味를 갖고 있는 生地黃竹葉을 배합하여 生지황은 君藥으로

죽엽은 臣藥으로 하였으며, 心의 氣는 熱로 그 性에 反하는 氣가 寒한 燈心車前子를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心實하면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心의 子가 되는 脾를 瀉해야 한다 (그림1-2). 瀉脾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 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脾病者, …… , 用苦瀉之, 甘補之.”<sup>14)</sup>에 의하면 脾의 味瀉는 苦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苦瀉脾).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脾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 한다. 脾는 장마철에 해당되고 장마철의 氣는 濕溫하므로 脾는 溫氣에 反하는 涼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涼瀉脾). 따라서 脾의 味瀉의 경우 苦瀉脾하므로 苦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脾의 氣瀉의 경우 涼瀉脾하므로 涼藥을 사용해야 한다. 苦味이면서 涼氣를 갖고 있는 黃連·梔子를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心實하면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心의 所勝이 되는 腎을 補해야 한다 (그림3-6). 補腎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補와 氣補를 해야 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腎病者, …… , 用苦補之, 鹹瀉之.”<sup>14)</sup>에 의하면 腎의 味補는 苦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苦補腎).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腎의 氣補는 “順其性”을 해야 한다. 腎은 겨울에 해당되고 겨울의 氣는 寒하므로 腎은 寒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補가 된다 (寒補腎). 따라서 味補의 경우 苦補腎하므로 苦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氣補의 경우 寒補腎하므로 寒藥을 사용해야 한다. 苦味이면서 寒氣를 갖고 있는 生地黄·죽엽을 배합하여 腎을 補하는 이외에도 心을 瀉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 “心欲熅, 急食鹹以熅之.”<sup>14)</sup>에 따라 藥味를 加減할 수 있다. 甘초를 使藥으로 배합하여 方劑를 구성하는 모든 藥물들을 조화시키고 있다.

脾實하면 脾 자체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脾의 子가 되는 肺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脾의 所勝이 되는 肝을 補하는 방법이 있다.

脾 자체를 瀉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 한다 (표2).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脾病者, …… , 用苦瀉之, 甘補之.”<sup>14)</sup>에 의하면 脾의 味瀉는 苦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苦瀉脾).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脾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 한다. 脾는 장마철에 해당되고 장마철의 氣는 濕溫하므로 脾는 涼한 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涼瀉脾). 따라서 脾의 味瀉는 苦味를 갖고 있는 黃連·梔子를 배합하여 黃連은 君藥으로 치자는 臣藥으로 하였으며, 脾의 氣는 濕溫으로 그 性에 反하는 氣가 涼한 石膏·枳實·大黃을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脾實하면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脾의 子가 되는 肺를 瀉해야 한다 (그림1-2). 瀉肺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 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肺病者, …… , 用酸補之, 辛瀉之.”<sup>14)</sup>에 의하면 肺의 味瀉는 辛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辛瀉肺).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肺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 한다. 肺는 가을에 해당되고 가을의 氣는 涼으로 肺는 그 性에 反하는 溫한 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溫瀉肺). 따라서 肺의 味瀉의 경우 辛瀉肺하므로 辛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肺의 氣瀉의 경우 溫瀉肺하므로 溫藥을 사용해야 한다. 辛味를 갖고 있는 桂枝·石膏·枳實·厚朴과 溫氣를 갖고 있는 桂枝·厚朴을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脾實하면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脾의 所勝이 되는 肝을 補해야 한다 (그림3-6). 補肝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 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肝病者, …… , 用辛補之, 酸瀉之.”<sup>14)</sup>에 의하면 肝의 味補는 辛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辛補肝).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肝의 氣補는 “順其性”을 해야 한다. 肝은 봄에 해당되고 봄의 氣는 溫하므로 肝은 그 性에 順하는 溫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補가 된다 (溫補肝). 따라서 味補의 경우 辛補肝하므로 辛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氣補의 경우 溫補肝하므로 溫藥을 사용해야 한다. 辛味이면서 溫氣를 갖고 있는 枳實·厚朴을 배합하여 肝을 補하는 이외에도 肺를 瀉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 “脾欲緩, 急食甘以緩之.”<sup>14)</sup>에 따라 藥味를 加減할 수 있다. 甘초를 使藥으로 배합하지 않은 것은 甘味는 補脾작용이 있어 脾實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石膏를 引經藥으로 배합하여 使藥하였다.

脾實하면 肺 자체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肺의 子가 되는 腎을 瀉하는 방법,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肺의 所勝이 되는 心을 補하는 방법이 있다.

肺 자체를 瀉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 한다 (표2).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肺病者, …… , 用酸補之, 辛瀉之.”<sup>14)</sup>에 의하면 肺의 味瀉는 辛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辛瀉肺).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肺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 한다. 肺는 가을에 해당되고 가을의 氣는 涼하므로 肺는 涼氣에 反하는 溫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溫瀉肺). 따라서 肺의 味瀉는 辛味를 갖고 있는 石膏·桂枝를 배합하여 석고는 君藥으로 계지는 臣藥으로 하였으며, 肺의 氣는 涼으로 그 性에 反하는 氣가 溫한 麻黃·杏仁을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脾實하면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肺의 子가 되는 腎을 瀉해야 한다 (그림1-2). 瀉腎을 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 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腎病者, …… , 用苦補之, 鹹瀉之.”<sup>14)</sup>에 의하면 腎의 味瀉는 鹹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鹹瀉腎).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腎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 한다. 腎은 겨울에 해당되고 겨울의 氣는 寒하므로 腎은 熱한 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熱瀉腎). 따라서 腎의 味瀉의 경우 鹹瀉腎하므로 鹹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腎의 氣瀉의 경우 熱瀉腎하므로 熱藥을 사용해야 한다. 鹹味인 택사·복령을 배합하여 腎을 瀉하고 心을 補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고, 熱(溫)氣를 갖고 있는 枳實·마황을 배합하여 腎을 瀉하고 동시에 肺를 瀉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여 이들 모두를 佐藥으로 하였다.

脾實하면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肺의 所勝이 되는 心을 補해야 한다 (그림3-6). 補心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補와 氣補를 해야 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心病者, …… , 用鹹補之, 甘瀉之.”<sup>14)</sup>에 의하면 心의 味補는 鹹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鹹補心). 吳昆의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心의 氣補는 “順其性”을 해야 한다. 心은 여름에 해당되고 여름의 氣는 熱하므로 心은 그 性에 順하는 熱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補가 된다 (熱補心). 따라서 味補의 경우 鹹補心하므로 鹹味藥을 사용해야 하며, 氣補의 경우 熱補心하므로 熱藥을 사용해야 한다. 鹹味인 택사·복

령을 배합하고 熱(溫)藥인 계지·마황을 배합하여 心을 補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心苦緩，急食酸以收之” · “心欲栗，急食鹹以栗之.”<sup>14)</sup>에 따라 藥味를 加減할 수 있다. 감초를 使藥으로 배합하여 방제를 구성하는 모든 약물들을 조화시키고 있다.

腎實하면 腎 자체를 瀉하는 방법,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腎의 子가 되는 肝을 瀉하는 방법,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腎의 所勝이 되는 脾를 補하는 방법이 있다.

腎 자체를 瀉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한다 (표2).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腎病者，……，用苦瀉之，鹹瀉之.”<sup>14)</sup>에 의하면 腎의 味瀉는 鹹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鹹瀉腎). 吳昆의 “順其性爲補，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腎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한다. 腎은 겨울에 해당되고 겨울의 氣는 寒하므로 腎은 寒氣에 反하는 熱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熱瀉腎). 따라서 腎의 味瀉는 鹹味를 갖고 있는 澤瀉·茯苓을 배합하여 택사는 君藥으로 茯苓은 臣藥으로 하였으며, 腎의 氣는 寒으로 그 性에 反하는 氣熱한 豬苓·肉桂를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腎實하면 五行相生의 母子관계에서 腎의 子가 되는 肝을 瀉해야 한다 (그림1-2). 瀉肝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瀉와 氣瀉를 해야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肝病者，……，用辛補之，酸瀉之.”<sup>14)</sup>에 의하면 肝의 味瀉는 酸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酸瀉肝). 吳昆의 “順其性爲補，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肝의 氣瀉는 “反其性”을 해야한다. 肝은 봄에 해당되고 봄의 氣는 溫하므로 肝은 그 性에 反하는 涼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瀉가 된다 (涼瀉肝). 따라서 肝의 味瀉의 경우 酸瀉肝하므로 酸味藥을 사용해야하며, 肝의 氣瀉의 경우 涼瀉肝하므로 涼藥을 사용해야한다. 酸味이면서 涼氣를 갖고 있는 白芍·芍藥·木芍藥을 배합하여 佐藥으로 하였다.

腎實하면 五行相剋의 所勝所不勝 관계에서 腎의 所勝이 되는 脾를 補해야한다 (그림3-6). 補脾하려면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따라 味補와 氣補를 해야한다.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脾病者，……，用苦瀉之，甘補之.”<sup>14)</sup>에 의하면 脾의 味補는 甘味藥을 사용해야 한다 (甘補脾). 吳昆의

“順其性爲補，反其性爲瀉.”<sup>15)</sup>에 의하면 脾의 氣補는 “順其性”을 해야한다. 脾는 장마철에 해당되고 장마철의 氣는 濕溫하므로 脾는 그 性에 순종하는 溫氣를 받을 때 비로소 氣補가 된다 (溫補脾). 따라서 味補의 경우 甘補脾하므로 甘味藥을 사용해야하며, 氣補의 경우 溫補脾하므로 溫藥을 사용해야한다. 甘味이면서 溫氣를 갖고 있는 炙甘草·甘草·生甘草를 배합하여 脾를 補하는 이외에도 腎을 瀉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素問』 「藏氣法時論篇第22」의 “腎苦燥，急食辛以潤之” · “脾欲堅，急食苦以堅之”<sup>14)</sup>에 따라 藥味를 加減할 수 있다. 감초를 使藥으로 배합하여 방제를 구성하는 모든 약물들을 조화시키고 있다.

사간탕의 조성약물(白芍藥·木瓜·生地黃·竹葉·柴胡·黃芩·甘草) 중에서 白芍藥은 君藥으로, 목과는 臣藥으로, 생지황·죽엽·시호·황금은 佐藥으로, 감초는 使藥으로 배합하고 있고, 사심탕의 조성약물(生地黃·竹葉·黃連·梔子·燈心·車前子·甘草) 중에서 생지황은 君藥으로, 죽엽은 臣藥으로, 황련·치자·등심·차전자는 佐藥으로, 감초는 使藥으로 배합하고 있고, 사비탕의 조성약물(黃連·梔子·桂枝·石膏·枳實·厚朴·大黃) 중에서 황련은 君藥으로, 치자는 臣藥으로, 계지·석고·지실·후박·대황은 佐藥으로, 석고는 使藥으로 배합하고 있고, 사폐탕의 조성약물(石膏·桂枝·澤瀉·茯苓·麻黃·杏仁·甘草) 중에서 석고는 君藥으로, 계지는 臣藥으로, 택사·복령·마황·행인은 佐藥으로, 감초는 使藥으로 배합하고 있으며, 평신탕의 조성약물(澤瀉·茯苓·白芍藥·木瓜·豬苓·肉桂·甘草) 중에서 택사는 君藥으로, 복령은 臣藥으로, 白芍藥·목과·지령·육계는 佐藥으로, 감초는 使藥으로 배합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현곡선생의 五臟 瀉方을 활용할 때는 『黃帝內經』式 補瀉溫涼<sup>2)</sup>에 따라 약물수를 조정할 수 있고 (표3), 『醫學入門』 「湯散丸丹斟等分」에서 제시한 군신좌사의 용량을 표준안으로 채택하여 원래 五臟 瀉方の 용량을 재조정하였다(표4). 『醫學入門』 「湯散丸丹斟等分」에서는 “대체로 군약을 10푼으로 한다면 신약은 7~8푼, 좌약은 5~6푼, 사약은 3~4푼으로 한다. 그밖의 가감하는 약은 좌사약의 용량과 같이 해야 한다. (大概君藥用十分，臣藥用七八分，佐藥用五六分，使藥用三四分，外有加減，數同佐使.)”<sup>16)</sup> 라고 하여 군신좌사의 용량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표3. 『黃帝內經』式 五臟六腑의 補瀉溫涼<sup>10)</sup>

	辛補	酸瀉	辛溫	酸涼	辛散	甘緩
肝膽	溫補涼瀉 辛補酸瀉	當歸·柏子仁·酒·生薑·陳皮·天麻·川芎·半夏·南星·細辛·白附子之類	半夏·陳皮·木香·沈香之類	赤芍藥·茜草·犀角之類	荊芥·川芎·白芷·生薑·青皮·延胡索之類	甘草·元肉·大棗·小麥之類
心小腸	熱補寒瀉 鹹補甘瀉	龜板·牡蠣·澤瀉·鹽·鐵粉之類	甘草·生地黃之類	烏賊骨·鹿茸·羊肉之類	竹葉·竹茹·蓮子肉·石膏之類	牡蠣·龜板·鼈甲·海藻·芒硝之類
	甘補	苦瀉	甘溫	甘涼	甘緩	酸收
脾胃	溫補涼瀉 甘補苦瀉	人蔘·白朮·炙甘草·黃芪·山藥·蓮子肉·大棗·元肉·蜂蜜之類	黃連·梔子·草龍膽·大黃·芒硝之類	飴糖·蜂蜜·白朮之類	苦參·黃連·梔子·草龍膽之類	甘草·元肉·大棗·飴糖·蜂蜜·砂糖之類
	酸補	辛瀉	辛溫	酸涼	酸收	苦泄
肺大腸	涼補溫瀉 酸補辛瀉	五味子·山茱萸·芍藥·訶子肉·烏梅·五倍子·罌粟殼之類	麻黃·桂枝·紫蘇·葱白·桑白皮·石膏·桔梗之類	麻黃·桂枝·蘇子之類	芍藥·烏梅·罌粟殼之類	五味子·醋·芍藥·烏梅·白礬之類
	苦補	鹹瀉	鹹溫	苦涼	辛潤	苦堅
腎膀胱	寒補熱瀉 苦補鹹瀉	熟地黃·乾地黃·何首烏·枸杞子·續斷·骨碎補·知母·黃柏之類	澤瀉之類	海狗腎·鹿茸·紫河車·肉苁蓉之類	知母·黃柏·玄蔘之類	巴戟天·柏子仁·桂枝·肉桂·附子之類
	鹹補	甘瀉	辛溫	苦涼		
心包三焦	熱補寒瀉 鹹補甘瀉	海狗腎·鹿茸·紫河車·肉苁蓉·蛤蚧·陽起石之類	茯苓·澤瀉·豬苓·車前子·燈心·滑石之類	生薑·白豆蔻·乾薑·肉桂·附子·吳茱萸·小茴香·胡蘆巴·補骨脂之類	黃芩·黃連·黃柏·知母·梔子·連翹·玄蔘·大黃·柴胡·草龍膽·木通·芍藥之類	

표4. 五臟 瀉方の 조성약물, 氣味와 君臣佐使

瀉肝湯	약물	白芍藥	木瓜	生地黃	竹葉	柴胡	黃芩	甘草
	氣味	苦酸甘微寒	酸溫	甘苦寒	甘辛淡寒	苦微寒	苦寒	甘平
	원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君臣佐使	君	臣	佐	佐	佐	佐	使
	조정율	10	7~8	5~6	5~6	5~6	5~6	3~4
瀉心湯	약물	生地黃	竹葉	黃連	梔子	燈心	車前子	甘草
	氣味	甘苦寒	甘辛淡寒	苦寒	苦寒	甘淡微寒	甘微寒	甘平
	원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君臣佐使	君	臣	佐	佐	佐	佐	使
	조정율	10	7~8	5~6	5~6	5~6	5~6	3~4
瀉脾湯	약물	黃連	梔子	桂枝	石膏	枳實	厚朴	大黃
	氣味	苦寒	苦寒	辛甘溫	辛甘大寒	苦辛微寒	苦辛溫	苦寒
	원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君臣佐使	君	臣	佐	佐(使)	佐	佐	佐
	조정율	10	7~8	5~6	5~6 (3~4)	5~6	5~6	5~6
瀉肺湯	약물	石膏	桂枝	澤瀉	茯苓	麻黃	杏仁	甘草
	氣味	辛甘大寒	辛甘溫	甘淡寒	甘淡平	辛微苦溫	苦微溫	甘平
	원용량	3돈 (11.2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君臣佐使	君	臣	佐	佐	佐	佐	使
	조정율	10	7~8	5~6	5~6	5~6	5~6	3~4
平腎湯	약물	澤瀉	茯苓	白芍藥	木瓜	猪苓	肉桂	甘草
	氣味	甘淡寒	甘淡平	苦酸甘微寒	酸溫	甘淡平	辛甘熱	甘平
	원용량	2돈 (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1돈 (3.75g)
	君臣佐使	君	臣	佐	佐	佐	佐	使
	조정율	10	7~8	5~6	5~6	5~6	5~6	3~4
平腎湯	조정율	2돈	1.4~1.6돈	1~1.2돈	1~1.2돈	1~1.2돈	1~1.2돈	0.6~0.8돈

\* 澤瀉는 『證類本草』에서 氣味가 甘鹹寒으로 되어 있다<sup>17)</sup>.

## 결론

玄谷선생의 瀉肝湯瀉心湯瀉脾湯瀉肺湯平腎湯의 五臟 瀉方を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 君臣佐使論, 五行論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瀉肝湯瀉心湯瀉脾湯瀉肺湯平腎湯 모두는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서 나온 味瀉氣瀉와 味補氣補가 五行論에 따라 각 五臟의 實에 맞게 조정되고 君臣佐使論에 의하여 약물의 配伍와 용량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五臟 瀉方 모두는 한약의 氣味藥性論을 方劑작성에 응용하여 創方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존 方劑를 분석하거나 創方に 氣味藥性論을 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1. Saamdoin Original Author ; Haengpageosa Translate and notes ; Tae Ho Lee Editor, 『Korean Interpretation for Essential Rhyme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y Master Sa-am(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 Second Edition, Seoul : Haengnim Book Store Publishing House, 1985 : 5-6, 155-239.
2. In Seon Lee,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for

3. Jin Su Kim, 『Constitution's Application of Five Phases Acupuncture』, First Edition Revised, Gyeonggi : Jeonguguihak Publishing House, 2003 : 9-59.
4. Gil Yeong Yun, 『Clinic Formula Science in Eastern Medicine』, Seoul : Myeongbo Publishing House, 1985 : 366-368.
5. Won CU, Kim SC, Shin SS, Hyeongok's Sagantang was Combined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2007 ; 21(5) : 1341-1345.
6. Soon Shik Shin, Hyeongok's Sasintang was combined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The Journal of Applied Oriental Medicine, 2010 ; 10(1) : 35-42.
7. Park TY, Kim GC, Shin SS, Hyeongok's Sabeatang was combined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7 ; 15(1) : 137-145.
8. Soon Shik Shin, Hyeongok's Sapyeotang was



- combined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The Journal of Applied Oriental Medicine, 2009 ; 9(1) : 67-75.
9. Tsung PC, Song CH, Kim BK, Xie CJ, Shin WJ, Park DI, Shin SS, Hyeongok's *Pyeongshintang* was combined according to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herbal medicines,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8 ; 16(2) : 91-100.
  10. Gil Yeong Yun. 『Study on Methodology of Eastern Medicine』, Seoul : Seongbo Publishing House, 1983 : 128-143, 269-270.
  11. Kim DH, Seo BI, Kim BK, Kim GC, Shin SS. Standard Principles for the Designing of Prescriptions - The Theory for Monarch, Minister, Adjuvant and Dispatcher,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3 ; 11(2) : 1-18.
  12. Yao Tong Compiler-in-Chief. 『Basic Theori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irst Edition,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 68-94.
  13.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terpreter. 『Revised Interpretation on Classic of Difficult Issues(難經校釋)』, First Edition,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9 : 151-153.
  14. Bing Wang(王冰) 撰. 『Plain Questions of Huangdi 's Internal Classic(黃帝內經素問)』, First Edition,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4 : 141-149.
  15. Kun Wu(吳崐) Notes ; Shando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epartmen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iterature Interpreter. 『Notes to Plain Questions of Huangdi 's Internal Classic by Wu(內經素問吳注)』, First Edition, Jinan : Shandong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84 : 105-111.
  16. Chan Li(李樾) Author ; Jin YL(金嫣莉) Notes. 『Introduction to Medicine(醫學入門)』, First Edition,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5 : 130.
  17. Shen Wei Tang(唐慎微) Original Author ; Shang ZJ·Zheng JS·Shang YO·Liu DP Interpreters.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證類本草)』, First Edition, Beijing : Hua Xia Publishing House, 1993 : 171-172.